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도입

금융부문 대책 시행 발표...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 6개 은행 구축 완료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30일 시행된다. 기존의 가상화폐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은행과 가상화폐 취급업소 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마친 뒤 기존 가상화폐 서비스를 대체해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모두 포함된다.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이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도입되면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한 뒤,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한 뒤,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화폐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게 된다.

30일 이후 가상화폐 취급업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단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한 뒤,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한 뒤,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은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도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이라며 "단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규 회원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으로 ▲자금이동 투명 ▲보이스피싱 등 범죄악용 감소 ▲미성년자, 외국인 등 무분별한 거래 차단 ▲향후 과세방안 확정되면 활용 ▲투기과열시 가상통화 시장안정 위해 필요방안 강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적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발표

세계은행 토지행정전문가, LX 방은 선진행정 견학

한국의 선진 토지행정과 공간정보 기술을 살펴보기 위해 세계은행(WB) 토지행정 전문가 대표단이 23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방문했다.

세계은행 토지행정 전문가인 메리 리스케트 콘잘레스 등 3명은 우투과이의 '지적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관한 발표를 청취했다.

또 향후 다른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분야 해외사업을 설계하는데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LX는 지난 2016년부터 스리랑카와 튀니지, 에티오피아 등을 대상으로 세계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정보와 수준 진단과 인적 역량 강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LX는 해당 국가 정부 관계자들이 ICT 기반의 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중장기 역량강화 교육을 설계하고 한국 초청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박명식 사장은 "LX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를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토지정보 역량강화 거점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글로벌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지난 2015년부터 세계은행의 '토지와 빈곤' 연례회의의 협력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토지 관련 정부기관·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국의 토지행정·공간정보 경험을 홍보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발견"

"은행권, 가상계좌 자금세탁위험 검토 없어"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화폐 관련 현장점검 결과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사이트)에서 다수의 자금세탁위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상황임에도 해당 은행권의 관리는 부실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 8일부터 16일(7영업일)에 걸쳐 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은행 등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을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는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 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입금(투자금 모집)하고 이 중 일부를 거래사이트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A거래사이트는 은행 5곳의 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입금해 A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100여원을 모은 뒤 이 중 42여원을 대표자 명의, 33여원을 사내이사 명의의 각각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처럼 일반 법인계좌를 입금계좌로 하는 이른바 '별집계좌'의 경우 사기·횡령·유사수신 뿐 아니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가 입출금 등 금융거래에 대한 분석이 어려워 정확도 높은 의심거래 정황을 보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은행들의 관리는 전반적으로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시 은행 내부 절차에서 정한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거

나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발급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법인 고객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할 경우 본부 부서장의 승인 등 내부 절차를 준수해 발급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준비감사부서나 감사부서에서는 가상계좌 발급 담당 부서가 은행에서 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상계좌를 발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점검 결과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행태도 발견됐다.

금융위는 "2곳의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재판매업체로부터 취득한 가상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은행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업체

에 대한 심사 절차가 미련해 있지 않았고 가상계좌가 재판매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지 않아 재판매를 통해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취급업소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와 관련된 고객 확인 작업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해 자금세탁 위험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쇼핑몰 등 가상화폐 거래와 무관한 업종의 법인이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했음에도 은행은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선 특별한 주의의 기울여 의심거래를 식별해야 하는데도 의심거래보고 등 신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선 특별한 주의의 기울여 의심거래를 식별해야 하는데도 의심거래보고 등 신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선 특별한 주의의 기울여 의심거래를 식별해야 하는데도 의심거래보고 등 신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선 특별한 주의의 기울여 의심거래를 식별해야 하는데도 의심거래보고 등 신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하림, 다양한 고객 취향 담은 '설 선물세트' 출시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설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닭고기 제품들을 엄선해 구성한 '2018 하림 설 선물세트'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선육부터 양념육, 삼계탕까지 다양한 구성을 통해 선물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

도록 정성껏 준비했다. 친환경 닭고기 브랜드 자연실록의 대표 제품들을 담은 '자연실록 방직호(5만2000원)'는 하림의 프리미엄 명절 선물세트다. 자연실록 제품은 생산에서 유통 품질관리까지 까다롭게 관리하여 자연의 신선함과 맛, 그리고 영양을 살렸다. 선물세트에는 국내산

황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토종닭의 쫄깃함과 훈제의 담백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토종닭 훈제 세트(4만5000원)'도 선물용으로 인기다. 국산 참나무 톨밤으로 토종닭을 통째로 훈연해, 닭고기 특유의 냄새를 잡아 깔끔하고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토종닭 훈제' 2봉과 '토종닭 통다리 훈제' 6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념육 세트(4만 5500원)'는 요리 할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에게 안성맞춤이다. 올 한해 많은 인기를 끌었던 하림만의 노하우가 담긴 특제 소스의 '춘천식 순살닭갈비'와 '포장마차식 양념근위', '포장마차식 뼈없는양념닭발', 그리고 올해 새로 출시된 '토종닭 매실숙성 순살닭갈비' 등이 들어있다. 익히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양념이 함께 버무려져 있어 가정에서 혹은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할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에게 안성맞춤이다. 올 한해 많은 인기를 끌었던 하림만의 노하우가 담긴 특제 소스의 '춘천식 순살닭갈비'와 '포장마차식 양념근위', '포장마차식 뼈없는양념닭발', 그리고 올해 새로 출시된 '토종닭 매실숙성 순살닭갈비' 등이 들어있다. 익히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양념이 함께 버무려져 있어 가정에서 혹은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한은, 해킹공격 대응 '사이버복원력 평가지침서' 발간

한국은행은 23일 국내외 해킹 등 사이버공격으로부터 핵심업무를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돕는 '사이버복원력 평가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복원력(Cyber resilience)은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을 확장한 개념이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해킹과 악성코드 배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권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지침서에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인 프라(FMI,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운영기관이 사이버리스크 대응체계를 자가 진단하는 59개 질문항목으로 구성됐다.

질문항목은 국제기준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국내상황에 맞게 만들었다. 관련 국내 법규 등도 수록했다.

지침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안체계 평가 및 해킹대응 관련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FSI)과 인터넷진흥원(KISA)에 자문을 받았다.

지침서에서는 국내 주요업무 복구목표시간(RTO, Recovery time objective)을 기존보다 1시간 줄인 2시간으로 권고했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주요 핵심업무를 사고 발생 후 3시간 이내로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호 연결된 예코시스템(참가기관·결제은행·연계 서비스제공자·IT기기 및 유지보수업자 등 FMI와 연계된 집단) 평가도 추가됐다. 상호 의존성에 따른 사이버리스크를 식별하고 사이버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 요소에 더했다.

한은은 FMI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 평가시 이같은 지침서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
|--|---|
| <p>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서부신시가지 다운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 <p>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p> <p>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북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p> |
|--|---|